마태복음 24장 왜곡

<시작 멘트>

신천지의 마태복음 24장 왜곡은 비유풀이 해악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상담자는 상담을 해나가면서 왜 이만희와 동업자들이 비유풀이에 그토록 공을 들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 사이비들이 장난치게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각 복음서 기자들로 하여금 사이비교리의 허점이 드러나도록 곳곳에 반증의 말씀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주제의 상담은 그것을 찾아서 미혹에 빠진 영혼을 구출하는 작업입니다.

<시작 멘트>

“6개월만에 성경을 통달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라는 꼬드김에 넘어가 신천지 센터에서 비유풀이를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 성경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최근에는 비유풀이부터 시작하지 않고 정통교리와 구별이 쉽지않은 성경개론부터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니, 성경지식이 많지않은 성도들은 누구나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설마 저 사람이 나를 속이랴?“** 라는 철저한 신뢰관계에서 맺어진 꼬드김이라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상담자는 신천지 신도들이 보통 교회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성도라는 관념을 머리속에 지워야 합니다. 목회자의 말에 순순히 따라주고 그동안 가르치던 복음주의적 교리로 상담하면 쉽게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보다는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처음으로 배우게 된 교리가 신천지교리였다는 가정하에 상담을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학에 입학하도록 평생 성경 한 줄 제대로 읽어보지 않다가, 수능이 끝나고 고3 미혹전략에 의해 신천지로 넘어게게 된 청년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하지만 예화나 듣고(신천지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축복받는 비결에 대한 설교나 들었던 집사님이 신천지의 비유풀이와 성경 찍짓기에 뒤집혔다고 한다면 상담이 한 두 시간에 끝날 일이겠습니까?

상담이란,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기도로 몇 날 며칠을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영적싸움임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1. 신천지의 주장과 반증

신천지 주장-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성전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마24:1-2)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것이 과천장막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었다.

▲ 무너진 첫장막 성전의 모습과 예언이 성취된 곳을 확인하는 순례자들(1983.9)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난 사건이 첫장막에 대한 말씀이라는 증거를 듣고 그 현장을 확인하고 기념 촬영한 모습. 현재 이 자리는 서울대도가 들어서 있다.

신천지발전사-50쪽

▲ 무너진 첫장막 성전의 터에 관해 예언과 실상의 증거를 들은 사람들이 직접 현장을 순례하면서 기념촬영하는 모습(1984. 5)

신천지발전사-118쪽

신천지의 첫번 째 주장은,

마24:1-2의 구절 중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는 말씀이 "과천장막성전의 무너짐이 실상으로 나타난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만희는 신천지 창설(1984년 3월) 전, 1983년에 과천대공원 공사로 인해 철거될 수밖에 없었던 폐허에 찾아가 '예언이 성취된 곳을 확인하는 순례자'라는 제목으로 신천지발전사 50쪽과 118쪽에 기록해 놓았다.

듣고본 기자 : 예수님의 제자 마태
기록된 때 : 약 2000년 전 (예언)
성취되는 때 : 종교 말년의 주 재림 때
사건현장 : 하나님의 장막 성전(예루살렘)
성사순리 : 배도, 멸망, 구원
출현인물 : 영계: 하나님과 천사
육계: 선민과 이방

사 건 요 약

하나님의 선민 장막성전에 멸망자들(이방)이 침노하여 삼키므로 선민은 멸망받게 되고 이일후 예수님께서 천사와 함께오사 동서남북에

176 성도와 천국

서 성도들을 모으신다.

이 때 성도가 명심해야 할 것은 도망갈 산과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주는 목자를 만나는 일이다.

1절-2절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것을 말씀하신다.
3절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주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에 대해 질문한다.
4절-5절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신다.
6절-12절	난리와 기근과 지진과 시험이 있고 불법이 성한다고 말씀하신다.
13절-14절	예수님의 예언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종말이 온다고 하신다.
15절-16절	멸망자가 침노했을 때 도망가야 할 피난처에 대해 알린다.
17절-22절	선민 치리자들이 당할 화와 형벌을 감하겠다고 하신다.
23절-28절	적 그리스도와 미혹에 대한 경고이다.
29절-36절	선민 종말 후에 있을 주 재림에 대한 내용이다.
37절-44절	예수 재림시 사람들의 심령 상태와 추수의 방법.
45절-51절	때를 따라 양식(마24장)을 나눠주는 자에게 모든 것을상속하겠다는 말씀과 경고.

성도와 천국
175~176쪽

신천지의 이러한 주장은 이만희가 지은 여러 책에 많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 성도와 천국 175~176쪽에 결정적인 내용이 나온다. 하나님의 선민인 과천장막성전이 멸망자들에게 멸망받게 되어 건물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상담자는 이 부분에서 답답한 나머지, "그게 과천 대공원공사를 하기위해 철거된 것이지, 어떻게 마태복음 실상이 이루어진 것이냐?"고 묻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꾹 참아야 한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믿고 있는 그들의 신앙생태를 인정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반 증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개역한글/마가복음13:1~2)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가라사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라 (개역한글/누가복음 21:5~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태에게만 이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마가와 누가에게도 기록하게 하셨다. **(마24장의 평행구 막13장, 눅21장)**

특히 마가는 헛갈릴 일이 없이 **"이 건물들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즉, 특정 고유명사이다.**

예언이란 한번 성취되는 끝이다. 이미 성취된 예언이 다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은 예언이 아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 처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이 AD. 70년에 로마 황제 티투스에 의해 무너진 것인데, 어떻게 오늘날 한국땅 과천장막성전과 연결될 수 있을까?

비유나 빙자가 적용되려면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유사성이 없다.

And Jesus went out, and departed from **the temple**: and his disciples came to him for to shew him **the buildings of the temple**.

2 And Jesus said unto them, See ye not all these things? verily I say unto you, There shall not be left here one stone upon another, that shall not be thrown down.

KJV ver.

Jesus left **the temple** and was walking away when his disciples came up to him to call his attention to **its buildings**.

'Do you see all these things?' he asked. 'I tell you the truth, not one stone here will be left on another; every one will be thrown down.

NIV ver.

영어성경을 보명 더욱 명확해진다.

KJV와 NIV 공히 **"the temple"이라는 특정 명사로 표현**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성경번역의 모태로 알려진 KJV에서는 "the buildings of the temple"이라고 예루살렘성전을 가리키고 있으며, 헬라어 원문에 충실한 최근 번역에는 더욱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이 성전", "이 성전 건물이", "그 건물들을 가리키며"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날이 이르면"이란 표현으로 다가오는 40년 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역사적 멸망을 정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 당시 아직 완공되지는 않았지만 그 웅장한 성전은 화려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 있으켰고 많은 사람들을 감탄하게 하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선언한 성전의 '황폐와 버림 받음'에 대한 예언은(마23:38) 쉽게 믿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자들은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정말 황폐하고 버림받게 됩니까? '라는 말없는 물음을 했을 것이다(막 13:11).

성전 건물들(타스 오이코 도마스 투 히에루), 이 성전 건물은 원래 B.C.19년에 유대인의 환심을 살 목적으로 에돔 사람 헤롯대왕에(2:1) 의해 착공된 것으로 비록 제 2성전을 개축할 의도로 시작한 것이기는 하나 거의 신축한 것이기에 일반적으로 제 3성전이라고 불리운다. 즉 이 건물은 솔로몬에 의한 제 1 성전(왕상 6:1-8:11, B.C. 959-586)과 스룹바벧에 의한 제 2성전(포로기 이후 B.C. 520년경에 재건)에 이은 새 성전 건물이었다. 이 제 3성전은 A.D.63년경 알비누스(Albinus)총독에 의해 완공되기까지 근 80여년의 기나긴 공사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그 중간에 봉헌식(착공 9년만에)을 하는 등 나름대로는 화려(華麗)한 외모로 치장되기도 했다(요 2:20). 실로 제 3성전은 유대 출신 제자들에게는 자랑스럽고 장엄한 것이었으며 마치 눈덮인 산처럼 아름다움 것이었다(Jos, Wars 5, 6). 그도 그럴 것이 이 성전은 거대한 대리석으로 둘려졌으며 지붕과 같은 특별한 부분들에는 금으로 꾸며졌다고 한다.

호크마주석 참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새번역 마태복음24:1~2)

예수께서 성전을 나와 얼마쯤 걸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와서 **성전 건물** 들을 가리키며 보시라고 하였다. 2
그러자 예수께서는 "**저 모든 건물**을 잘 보아두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공동번역/마태복음20:1~2)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보이려고 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 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마태복음 20:1~2)

신천지 신도들 중에는 개역한글 버전만 보겠다고 하면서 다른 버전은 보지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들을 잘 설득하여 대한성서공회 싸이트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를 설명해준 다음, 신약성경의 헬라어 원본에 충실한 번역을 한 다른 버전도 보여준다.

하나같이 특정 고유명사임을 알 수 있다.

이 세대에 이루어 질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마23:3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마24:34)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막13:3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눅21:32)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제외한 각 복음서에 공히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든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말씀으로 AD 70년에 로마 티투스황제의 예루살렘 공격으로 인한 성전의 파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의 멸망예언은 반복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예언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누가복음에는 4차례나 걸쳐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 멸망예언(마24:1-2, 막13:1-2, 눅13:35, 19:41-44, 21:5-6, 23:26-30)

특히 누가복음에는 4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의 말씀인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계시가 있을 때는 항상 반복해서 알려주셨으며 명백하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다.

A. 예루살렘 입성 전 - 눅13:31-35

B. 예루살렘 입성 시 - 눅19:38-44 (마21:7-11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예루살렘 입성이 나옴. 이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여 장사치들을 내어 쫓으심 (눅19:45-46), 마21:12-13)

C. 예루살렘 입성 후 - 눅21장, 마태복음 24장.

D. 십자가를 지실 때 - 눅23:26-30

*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계시는 항상 반복해서 알려주신다.
위의 경우들을 보면, 명확하게 이스라엘 땅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결코 유재열의 장막성전이 아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

"멸망자(오평호 목사/청지기교육원)가 과천장막성전에 들어간 것을 보거든"

신천지 주장-2

대답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찐저)(마24:15)

"멸망의 가증한 것"은 이방장로교회이며, "거룩한 곳에 선 것"은 장막성전으로 비유 해석한 것이다. 즉 이방장로교회가 과천장막성전을 무너뜨리려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증거장막 성전의 노정

▲ 산으로 다니시며 예배드리는 모습

거룩한 곳(천장막)에 멸망자가 선 것을 보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처음에는 안양시 인덕원에 있는 총회장 이만희 선생님의 단간방에서 예배를 드렸으나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므로 산으로 다니시며 3년동안 예배를 드렸다. 성경의 약속된 예언이 실상으로 나타난 사건을 말씀과 아울러 증거하시는 이만희 선생님

신천지발전사 -50쪽

신천지의 두번째 주장은 더 황당하다.

과연 구약시대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멸망의 가증한 것"이 오평호 목사를 비롯한 청지기교육원이고, "거룩한 곳"이 과천장막성전일까?

또 예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1970~80년대에 대한민국 과천 땅에서 일어날 사건을 예언하신 것일까? 왜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든지 "거룩한 곳"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였을까?

마태가 '멸망의 가증한 것'과 '거룩한 곳'이라고 기록한 목적은 당시의 유대에 있던 로마군대의 영향 때문이다. 실제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법과 은유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기록한 것이다. 다니엘서를 인용하였는데 정황상 로마군대임을 알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선 좀 깊이 들어가본다. 먼저 마태복음의 기록시기는 AD 70년 이전에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AD 70년에 발생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고 있기때문이다.

그렇다면, AD 70년 이전의 유대의 역사적 시대상황으로 살펴봐야 한다. AD 39년에 가이우스 황제의 동상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AD 49년 클라우디오 황제시절 유대인 추방사건, AD 64년 로마 대화재사건 등 살벌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다고 역사는 기록되어 있다.

마태는 로마의 핍박뿐 아니라 그 당시 예수님을 배척하던 유대교 대적자들이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멸망의 가증한 것의 정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정황상 다니엘서를 인용하여 멸망의 가증한 것이 로마군대임을 암시하는 은유법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표현을 통해 유대인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쓴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눅21:20)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눅21:24)

**날이 이를찌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눅19:43-44)**

누가복음의 관련구절은 더욱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있는 1세기 유대사회에서, 군대, 이방인, 원수들로 표현되는 것은 로마군대뿐이다. 또한 거룩한 곳도 "예루살렘은", "토성"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명백하게 예루살렘 성을 말하며 과천장막성전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은 전혀 없는 것이다. 이만희가 거짓말로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다른 복음서 유사구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눅21:20)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표현이 마태복음보다 자유스러웠다. 그래서 **"멸망의 가증한 것=군대"**라고 직접 표현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눅21:24)

날이 이를찌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네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눅19:43-44)

복음서가 쓰여진 1세기에 유대인에게 군대, 이방인, 원수들로 표현되는 것은 로마 군대밖에 없었다.

또한 거룩한 곳이라는 표현도 "예루살렘은, 토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예루살렘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왜 요한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았을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음(약 AD 60년 경)

-그 이후 AD 70년 경에 예루살렘 성전 무너짐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

역사적 사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AD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멸망의 기록은 유대인이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AD37-100)의 저서인 '유대전쟁사'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즉 마24장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신천지 주장-3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마24:16)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는 시온산 즉 신천지로 도망가야 살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

신천지의 세번 째 주장은 국어적 문맥을 보지않는 신천지식 성경해석의 오류를 보여주고 있다.

마24:16의 "산으로 도망할지어다"에서 오늘날 시온산, 즉 신천지로 도망가야 살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을 가리킨다. **다윗 성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사무엘하 5:7)

여브스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사무엘하11:5)

반 증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가리킨다.(사무엘하 5장, 스바냐3:16).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것이니 도망가라는데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도망하는가? 산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산으로서 그냥 산일 뿐이다. 그 당시 기준으로 도망할 때 성내에 있지 말고 촌으로 피해야 했다. 즉 유대밖에 있는 산으로 도망가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이 장막성전이 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예루살렘의 멸망 당시 성 내에서 약 1,100,000명이 사망하고, 9,700여 명이 포로로 잡혀갔으며 (나침반 출판사 대환란개념 130쪽),

그리스도인들은 갈릴리 동편에 있는 산과 요르단 지역 펠라산으로 피신하여 한 사람도 죽지않고 살았다고 초대교회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다. 예언이 그야말로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영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유사성과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다.

더우기 누가복음 관련구절에서는 성내에 있는 자들은 아예 "나가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은 과천장막성전이 될 수 없다. 비유로 풀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구절이며 조작된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찌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찌어다(눅21:21)

신천지 주장-4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24:19)

"아이 밴 자는 말씀을 가진 장막성전 목자이다. 이유는 (예수님=신랑, 씨=말씀) 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목자이다. 젖 먹이는 자 또한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이는 목자를 말한다. 이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은 멸망자들에게 교권을 빼앗기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본 문

마태복음 24:19-21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문 제

98.
1) 본문에 기록된 아이 밴 자와 젖먹이는 자는 어떤 자인가?
2) 예수께서는 왜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셨는가?

신천지 교육자료

신천지의 네번 째 주장은, 과거 신천지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비유를 풀어 아이 밴 자와 젖 먹이는 자가 과천장막성전의 목자들이라고 주장한다.

반 증

1.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하는 사마리아의 멸망 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약자의 대표적인 상징이 아이 밴 자와 어린아이이며, 그만큼 형벌이 가혹하다는 의미이다.**

사마리아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숴 뜨리우며 그 아이 밴 여인은 배가 갈리우리라 (호세아13:16)

2. **은혜의 시기에는 아이 밴 자와 젖먹이는 자가 축복이지만, 환난 때에는 그런 사람이 가장 슬프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마24장의 젖먹이는 자와 아이 밴 자도 예루살렘성이 환난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약자들이 가장 괴로움 당할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함이나 아이 뱀이나 잉태함이 없으리라 12 혹 저희가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저희를 떠나는 때에는 저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13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14 여호와여 저희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청컨대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호9:11_

그러나 신천지의 주장대로 아이 밴 자=장막성전의 목자로 풀려면, 다른 성경의 구절도 동일하게 풀어야 하는데 어떤 것은 자기들 입맛에 맞게 비유로 풀고 다른 것은 안 풀면 진리가 될 수없다.

구약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하는 사마리아의 멸망 때에도 동일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이 밴 자와 어린아이야말로 약자의 대표적인 상징이며, 그만큼 형벌이 가혹하다는 의미라고 볼수 있다.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24:19)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막13:17)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눅21:23]

또한 마24:19와 관련구절인 눅21:23에서는 아이 밴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데,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을 것" 이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아이 밴 자는 그냥 아이 밴 자이고, 젖 먹이는 자는 그냥 젖먹이는 자라는 직접적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앎이라 네가 저희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 밴 부녀를 가르리라 (열왕기하 8:1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밴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암1:13)

백번 양보하여 신천지식으로 푼다해도 이 구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것은 비유이고, 어떤 것은 아니라고 하면 진리가 아니고 사사로이 푼것일 뿐이다.

신천지 주장-5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의 "말세전쟁"은 하나님의 교회(신천지)와 마귀 교회(기성교회)와의 전쟁이다.

말세에 천국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는 미혹자는 바로 자기 목자(마 23:13).
신약 계시를 받지 못하면 천국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뜻도
약속의 목자 이긴 자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도 성경도 천국도 약속의 목자도 오직 하나!
가야 할 곳도 오직 하나!

※ 계시록과 마태복음 24장의 '말세 전쟁'은 하나님의 교회와 마귀 교회와의 전쟁인데 이를 '세상 전쟁'이라고 말하는 자는 마귀 씨를 뿌리는 것임.

신천지 주장의 결정적인 오류는 그들이 다섯 번째 주장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쯤에서 상담도중 흔들리는 신천지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신천지 세미나 전단지나 이만희의 책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과 요한계시록의 말세전쟁이 하나님의 교회(신천지)와 마귀교회(기성교회)의 싸움이라고 주장한다.

반 증

성경 Bible

누가복음 21장

33.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35.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36.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과연 그럴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이비들이 성경으로 장난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셨다. 누가복음 2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지막 때는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고 말씀하신다.

무슨 의미일까?

결코 신천지의 주장대로 대한민국 땅 144,000명을 모으기 위한 신천지와 기성교회의 싸움이아니라는 것이다. 신천지는 매번 2~3년, 2~3년 하면서 곧 마지막이 될 것처럼 말하지만, 이 성경말씀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또 마25장의 아래 구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32절의 모든 민족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으로 국한시켜야 할까?

31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같이 하여
33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마25:31-32)

신천지 주장-6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마24:29)

해 = 아버지격 목자

달 = 어머니격 전도사

별들 = 아들격인 성도

비유풀이를 이용하여, 해가 어두워지면 달에게 빛을 주지 못하고 달이 빛을 별들에게 주지 못하므로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빛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장막성전의 목자와 전도사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됨으로 성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 증

1. 바벨론의 멸망

(사13:10)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취지 아니할 것이로다 "

2. 애굽의 멸망

(겔32:7)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임이여 "

3.에돔의 멸망

(사34:4)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

4.예루살렘의 멸망

(욜2:10)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
(행2: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암8:9)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케 하며 "

어느 민족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관용적 표현이 있는데, 해,달,별이 빛을 잃는다는 표현(일월성신의 징조)은 국권이 무너지고 나라가 바뀔 때의 표현이다.

각 상황별 말씀을 잘 살펴보고, 해 달 별을 신천지식으로 풀어야 할 일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신천지 주장-7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24:30-31)

신천지의 마지막 주장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바로 이만희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구름을 영으로 비유하여 인자(예수님)가 이만희c에게 이미 임하였으며, 천사들을 보내는 것이 교회에 몰래 들어가 성도들을 빼오는 추수밭 사역이고,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것이 144,000명을 불러 모으는 작업이라고 한다.

144,000명을 모으는 작업은 시간이 걸리므로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즉 이만희가 한창 인을 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반 증

35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7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24:30절 초반의 "그 때에"는 헬라어로 "도테"인데 "그 후에"라는 의미의 단어이다. 우리 말로 "그 때", 영어로 "then"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그 후에"라는 의미이다.

마24:29에서 일월성신의 징조가 나타난 후 30절에서 "그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 후에 인자(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리라고 하셨다.

신천지식으로 하자면, 이만희에게 이미 예수님의 영이 임하여 인을 치고 있는 중인데, 인 치기기 전에 모든 족속(세계 모든 민족)이 통곡하는 일이 있었던가? 또 모든 민족들이 어떤 모습이든 예수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았던가? 연결이 안된다.

또 그 아래 마24:25에서는 마지막 때는 아버지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고(예수님조차), 27절에선 번개에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이듯 오며 37~39에는 인자의 임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조차도 모르실 정도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모든 인류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도록,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번쩍이듯 모든 인류가 알 수 있도록 인자가 오신다는 의미인데, 이 말씀조차도 영적비유로 풀어야 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다.

2 정리하기

마24장의 핵심

1.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2.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깨어있으라.**
3. **속지 말아라.**

마태복음 24장의 에언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예루살렘의 멸망과,
둘 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같이 예언하셨다.

이것을 신천지가 장막성전의 멸망과 이만희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비유풀이를 통한 조작에 다름 아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의 무시무시한 심판 때의 모습과 연결되곤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천년 전에 기록하신 이 엄청난 인류 최대의 사건을 고작 과천장막성전의 멸망이라는 실상을 위해 기록하셨을까?

성경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1) 본문을 문맥적으로 잘 연결해서 해석해야 하고,
2) 복음서 간에 비교해가면서 보아야 하고,
3) 역사적, 시대적 상황을 잘 살피고 적용하며 보아야 한다.

<마무리 멘트>

故 옥한흠 목사님

상담자는 신천지인들의 영적 무지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주님품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목자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천지에게 속절없이 성도들을 빼앗기고 있으면서도 "내 교회만 피해없으면 되지"하거나, 교회에서 발각된 신천지인들을 쫓아내기 바쁜 목회자가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 삯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요10:11-12)